



창조금융을 위해 모험자본 활성화 필요

구 정 한 (연구위원, 3705-6260)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 모험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금지원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술력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확대, 투자자금의 중간회수수단 다양화,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창업여건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 모험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함.
 - 경기침체로 전통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도 이슈화되는 가운데 미래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창조경제 구현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함.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므로 금융당국에서도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업 및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음.

〈표 1〉 연도별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개)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투자잔액 (업체)	26,271 (2,668)	22,675 (2,414)	21,957 (2,093)	24,781 (2,179)	26,613 (2,165)	27,628 (2,093)	31,010 (2,171)	35,913 (2,290)	39,525 (2,436)
신규투자 (업체)	6,044 (544)	7,573 (635)	7,333 (617)	9,917 (615)	7,247 (496)	8,671 (524)	10,910 (560)	12,608 (613)	12,333 (688)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최근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 부문의 투자비중이 높은데다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전년 대비 2,670억 원 감소한 7,247억 원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2년 1조 2,333억 원을 기록하였음(〈표 1〉 참조).
 - 벤처투자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금(모태펀드 포함) 및 정책금융공사의 투자비중이 높아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표 2〉 참조).
 - 더불어 2012년말을 기준으로 볼 때 창업 후 3년 이하인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30.0%로 창업 후 7년 초과 후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44.6%에 비해 낮은

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 업력을 초기단계(3년 이내), 중기단계(3년~7년), 후기단계(7년초과)로 구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¹⁾

* 초기(후기)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비중(%) :

(’07)36.8(25.1) → (’08)40.1(24.6) → (’09)28.6(41.4) → (’10)29.3(44.1) → (’11)29.5(44.3) → (’12)30.0(44.6)

〈표 2〉 연도별 결성조합 중 정부/기금, 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의 출자 비중

(단위 : %)

조합원유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부/기금 (모태펀드)	32.6 (0.0)	28.1 (9.3)	14.7 (11.4)	25.1 (11.5)	22.0 (16.0)	23.7 (18.7)	32.3 (27.5)	12.7 (11.7)	16.9 (11.6)	32.8 (28.0)
정책금융공사	-	-	-	-	-	-	-	24.7	17.5	5.6
계	32.6	28.1	14.7	25.1	22.0	23.7	32.3	37.4	34.4	38.4

주 : 약정금액 기준 출자 비중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또한 창업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의 규모도 2000년 IT붐 붕괴와 더불어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

- 2011년 기준 엔젤투자 규모는 2000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94.6% 감소하였는데 벤처캐피탈의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창업기업 및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 엔젤투자 금액(투자자수) (단위 : 억원, 명)²⁾ :

(’00)5,493(28,875) → (’03)3,031(3,964) → (’06)971(2,727) → (’09)346(1,243) → (’11)296(619)

■ 창조금융의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기술력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확대,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공급 확대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투자자금은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 공유 및 이익배분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참여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자금을 적극 유치하는 데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담보가 부족하고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만을 보유한 경우가 많지만 정보비대칭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식재산 및 기술력에 대한 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창조금융 구현을 위해 정부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금지원의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분장을 통한 중점 지원사업의 차별화가 필요함.
- 또한 자금지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 총 지원실적뿐만 아니라 지원단계별 실적을 감안하여 장기적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벤처투자자금의 중간 회수수단 다양화, 창업여건 개선 등을 통해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후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에서 중간회수시장이 취약하여 자금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후기단계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임.
- 따라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으로 이루어지는 창업 및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에서 취약한 중간회수시장의 확대가 관건이므로 신설될 코넥스시장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펀드, M&A 매칭펀드 등 중간회수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창업자에게 멘토,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시 실패 확률을 낮추면서 창업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성실한 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 확대를 통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KIF**

2)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2012,12,10.)